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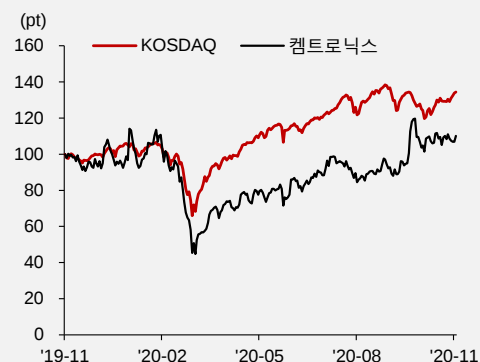
## Company Report

2020.11.24

### Not Rated

|                    |                  |
|--------------------|------------------|
| 목표주가               | - 원              |
| 현재주가               | 18,400 원         |
| Upside             | - %              |
| Key Data           | 2020 년 11 월 23 일 |
| 산업분류               | 코스닥 제조           |
| KOSDAQ(pt)         | 873.29           |
| 시가총액 (억원)          | 2,734            |
| 발행주식수 (천주)         | 14,858           |
| 외국인 지분율 (%)        | 4.2              |
| 52 주 고가 (원)        | 20,000           |
| 저가 (원)             | 7,460            |
| 60 일 일평균거래대금 (십억원) | 14.1             |
| 주요주주               | (%)              |
| 김보균 외 12 인         | 27.3             |
| 주가상승률 (%)          | 1M 6M 12M        |
| 절대주가               | 5.1 42.1 9.9     |
| 상대주가               | -2.7 15.3 -20.3  |

### Relative Performance



### LEADING RESEARCH

Analyst 신지훈

Jhshin2@leading.co.kr

+822-2009-7063

# 캠트로닉스(089010)

## Game Changer 가 될 상이오!

### 새로운 방식의 UTG, 기회가 왔다!

2020 년 10 월 23 일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폴더블폰에 터치펜 탑재 위해 두꺼운 커버원도우를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 동사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UTG 생산 방식으로 올해 5 월경 SDC 에 Test 장비를 반입. 힌지부분을 식각하는 방식으로 UTG 를 만들기 때문에 굽힘에 강하고, 힌지부분의 터치펜 인식률도 높다는점에서 폴더블폰에 적합. 스마트폰 생산 스케줄을 감안해 보면 2021 년 9 월경 새로운 폴더블 폰이 출시될 경우 최소 6 개월전 양산장비의 반입, 그 이전에 Quality Test 가 끝이 나야함. 그런데 2021 년 플래그십 모델이 기존보다 한달가량 앞서 출시될 예정이니, 하반기 출시될 폴더블폰의 출시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큼.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것도 동사에 유리한 환경

### 고객사 내 HIAA M/S 80%

2019 년까지는 Thin Glass 를 식각하는 매출이 대부분이었지만 2020 년부터는 HIAA(Hole In Active Area), Polishing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Thin Glass 는 디스플레이의 슬림화, 경량화 추세는 이미 플래그십 폰에서는 대세가 되었고, 이제 중저가폰으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베젤리스와 대화면을 지향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Notch 보다 HIAA 를 더 선호하고 있고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HIAA 형태인 것을 보면 동사의 매출을 지속 증가할 것. 디스플레이 식각에 있어 국내 M/S 1 위인 동사의 2021 년 실적이 기대되는 이유

### 2021 년 사상 최대 실적은 이미 확정!

2021 년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것. 2021 년 추정치 매출액 5,471 억(+10.4% y-y)과 영업이익 328 억(+49.8% y-y)에는 UTG 매출은 반영하지 않았음. 동사의 방식이 채택되면 실적 향상이 가능하고, 이에 앞서 Valuation Re-rating 이 선행하여 나타날 것. 안정적인 사업 다각화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실적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2021F PER 12.9x 는 저평가 수준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매출액 (억원)   | 2,928  | 3,374 | 4,035 | 5,110 | 5,471 |
| 영업이익 (억원)  | -103   | 94    | 263   | 225   | 328   |
| 영업이익률 (%)  | -3.5   | 2.8   | 6.5   | 4.4   | 6.0   |
| 지배순이익 (억원) | -162   | 11    | 162   | 144   | 212   |
| PER (배)    | -      | 72.7  | 16.3  | 18.5  | 12.6  |
| PBR (배)    | 0.9    | 1.0   | 2.7   | 2.5   | 2.2   |
| ROE (%)    | -21.4  | 1.4   | 18.5  | 14.2  | 18.6  |
| EPS (원)    | -1,307 | 85    | 1,141 | 970   | 1,4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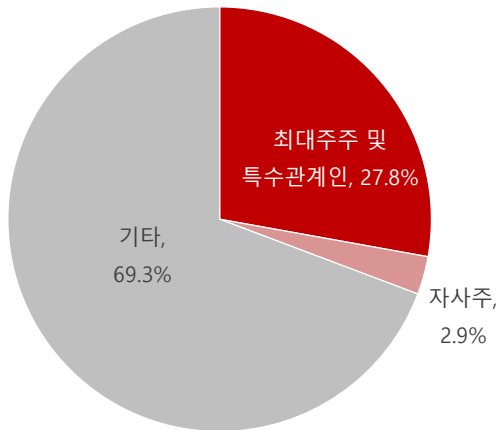
자료: 리딩투자증권, K-IFRS 연결기준

## 미래먹거리를 모두 하는 기업

### 기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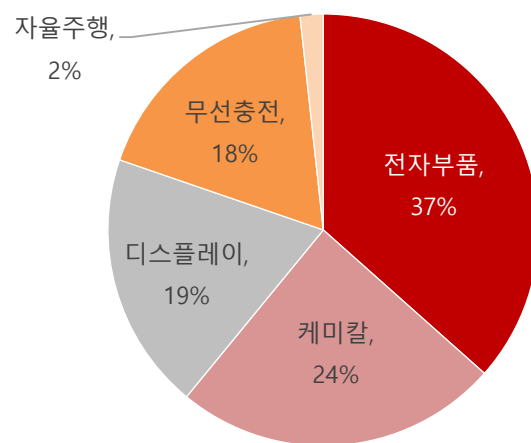
동사는 케미컬 사업을 모태로 시작해 현재 총 5 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부문별로 매출 비중은 전자부품 37%, 케미컬 24%, 디스플레이 19%, 무선충전 18%, 자율주행 2%이다. 전자부품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케미컬과 디스플레이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 무선충전과 자율주행은 향후 성장폭이 커질 사업이다.

그림 1. 지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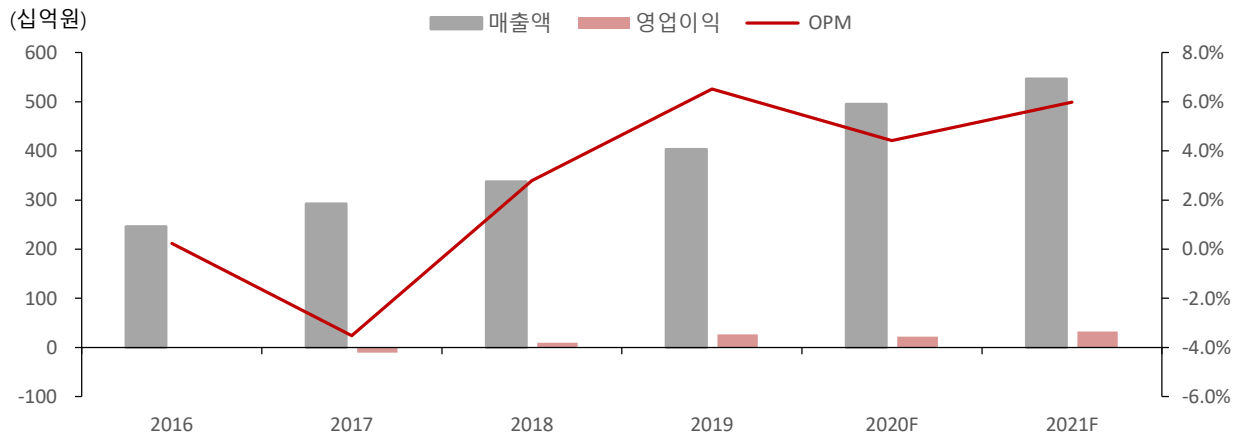
자료: 캠프로닉스,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매출 비중



자료: 캠프로닉스,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실적 추이



자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Game Changer 가 될 상이오!

### 새로운 방식의 UTG

2020 년 10 월 23 일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폴더블폰에 터치펜 탑재 위해 두꺼운 커버윈도우를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동사는 2016 년부터 UTG 개발을 시작했고, 현재 양산되고 있는 폴더블 폰에 적용된 UTG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올해 5 월경 SDC 에 Test 장비를 반입한 것을 확인된다. 현재의 폴더블폰에 적용된 UTG 는 독일 Schott Ceran 社 에서 원장을 받아 라미네이팅 하는 방식으로 커버윈도우가 30um 두께로 상당히 얇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굽힘에 약하고 힌지부분에서의 터치펜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한 갤럭시 Z 폴더 2 에 터치펜을 넣지 못했다. 디스플레이 면적이 넓어진 폴더블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터치펜 삽입이 꼭 필요하고, 갤럭시 노트 단종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폴더폰에 터치펜을 넣어야하기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고민이 커져있다. 동사는 기존 방식의 Schott Ceran 社 보다 두꺼운 유리 원장을 일본 NEG 社에서 받아 힌지부분을 식각하는 방식으로 60um 두께 이상의 UTG 를 만들기 때문에 굽힘에 강하고, 힌지부분의 터치펜 인식률도 높다는점에서 삼성전자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스마트폰 생산 스케줄을 감안해 보면 2021 년 9 월경 새로운 폴더블 폰이 출시될 경우 최소 6 개월전 양산장비의 반입, 그 이전에 Quality Test 가 끝이 나야한다. 그런데 2021 년 플래그십 모델이 기존보다 한달가량 앞서 출시될 예정이니, 하반기 출시될 폴더블폰의 출시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것도 동사에 유리한 환경이다. Game changer 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것이다.

### 고객사 내 HIAA M/S 80%

### 디스플레이 부문

2019 년까지는 Thin Glass 를 식각하는 매출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20 년부터는 HIAA(Hole In Active Area), Polishing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Thin Glass 는 디스플레이의 슬림화, 경량화 추세는 이미 플래그십 폰에서는 대세가 되었고, 이제 중저가폰으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베젤리스와 대화면을 지향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Notch 보다 HIAA 를 더 선호하고 있고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HIAA 형태인 것을 보면 동사의 매출을 지속 증가할 것이다. Polishing 은 디스플레이의 고해상도 추세로 미세한 결함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 역시 필수공정이 되고 있다. 이는 디스플레이 식각에 있어 국내 M/S 1 위인 동사의 2021 년 실적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그림 4. 기존방식 vs Notch 방식 vs HIAA 방식 비교



## 2021 년은 국산화 가속화의 원년

### 케미칼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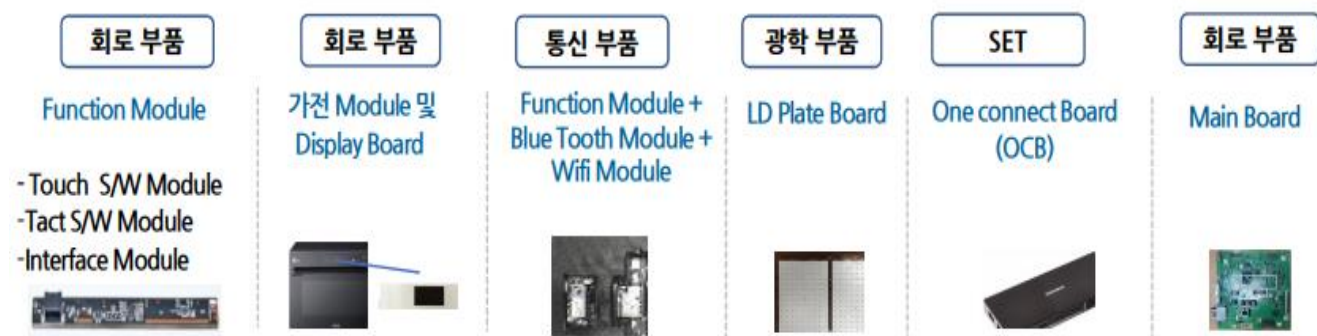
케미칼 부문은 동사의 모태 사업으로 공업용 케미컬과 전자용 케미컬로 구분된다. 공업용 케미컬은 페인트, 잉크, PVC 등에 사용되는 제품들로 단순 수입해 유통하는 사업이고 전자용 케미컬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기초 제품들을 일부 수입해 정제한 후 제품화하는 사업이다. 앞으로는 단순 정제를 넘어 자체 기술력으로 합성한 제품을 양산함으로써 실적증가의 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PMA(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Acetate)는 국내 고객사들이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합성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농도를 낮추면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될 여지가 크다. 또, 디스플레이 코팅액으로 주로 쓰이는 Siloxane Polymer 도 자체 합성하여 판매가 본격화 될 것이다. 이는 향후 동사의 UTG 방식이 채택되면 고객사로 UTG 코팅액으로도 판매가 될 예정이다.

### 삼성전자 외주화에 맞춰 ODM 매출 지속 증가

### 전자부품 부문

과거 TV 에 들어가는 기능키 모듈을 주로 생산해왔고, 최근에는 통합 모듈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또, OLED TV 수요 증가에 따라 LD Plate Board 생산이 늘고 있어 기존 2 개 라인에서 5 개 라인으로 증설했다. 2021 년에도 매출액 증가보다 이익률을 높여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간 1,800 억 이상의 매출로 총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이익률 개선은 EPS 를 높여주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림 5. 전자부품



자료: 캠펬로닉스,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삼성전자 무선충전기(TX) 세트업체로 선정

### 무선충전

삼성전자의 무선충전기(TX) 세트업체로 선정되어 하반기 2 개 모델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올해 출시한 아이폰 12 부터 충전어댑터를 제공하지 않았고, 2021 년부터 삼성전자도 순차적으로 충전어댑터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무선충전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또, 플래그십폰에서 중저가폰으로 무선충전 기능 탑재가 확대되고 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2021 년부터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단종 이슈가 있어 앞서 언급한 물량 증가요인을 일부 상쇄 할 수도 있다.

## 미래 먹거리, 자율주행 V2X

###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율주행방식은 크게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와 V2X(Vehicle to Everything)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ADAS 는 센서를 이용해 주변을 감지해 주행에 적용하는 방식이고 V2X 는 통신을 이용해 차량간 정보를 교환하여 주행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ADAS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100 미터 이상에서 떨어지는 인식률과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으로 최근에는 V2X 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24 년까지 유럽 및 한국 등 국가에서는 V2X 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V2X 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2 가지가 해결 되어야한다. 첫째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이고, 둘째는 DSRC 와 C-V2X 두가지 표준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문제이다. 중국은 C-V2X 를 표준으로 확정했고, 다른 국가들은 표준 확정을 위해 많은 논의 중이다. 동사는 인프라에 설치되는 RSU(Road Side Unit)와 자동차에 설치되는 OBU(On Board Unit)를 모두 생산하고 있어 V2X 시장이 본격화 될 때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V2X Items



자료: 캠펜로닉스,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V2X 국가별 현황

| 구분 | 국가 정책                                                                                                                                                                                       | 자동차 업체                                                                                                                                                                                         | C-ITS / Test bed                                                                                                                                                 |
|----|---------------------------------------------------------------------------------------------------------------------------------------------------------------------------------------------|------------------------------------------------------------------------------------------------------------------------------------------------------------------------------------------------|------------------------------------------------------------------------------------------------------------------------------------------------------------------|
| 한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2X 표준 확정 예정 ('21)</li> <li>지역 기반 V2X 인프라 확대 ('23)</li> <li>완전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24)</li> <li>V2X 법제화 준비 진행 ('24)</li> <li>미래차 산업발전전략 발표 ('27)</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자동차 신차 V2X 장착 예정 ('21)</li> <li>KNCAP V2X 적용 예정 ('24)</li> <li>전장업체 중심 5GAA 추가 가입 활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ITS V2X 단가 급속 하락 지속</li> <li>V2X+통합단말기 구조 요구</li> <li>지자체 V2X 인프라 사업 확대</li> <li>WAVE / C-V2X / 5G 기반 V2X 혼재</li> </ul>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2X 표준 미 확정</li> <li>C-V2X 용 주파수 할당 사전 공고 ('19. 11)</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드 / 쉐보레 주도 C-V2X 확대 ('21)</li> <li>포드 C-V2X 장착 차량 양산 ('22)</li> <li>GM / Toyota 등 V2X 장착 연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 별 WAVE 기반 Test Bed 구축</li> <li>C-V2X 기반 Test Bed 구축 진행 (콜로라도 주 : 쉐보레/포드/파나소닉 - 500 대)</li> </ul>                       |
| 유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SRC V2X 표준 채택 불발 ('19) - EU</li> <li>V2X 표준 미 확정</li> <li>5GAA / GSMA 에서 EU 대상 C-V2X 지속 로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스바겐 DSRC 기반 차량 양산 ('19)</li> <li>폭스바겐 DSRC / C-V2X 양산 ('22)</li> <li>EURO NCAP : V2X 적용 예정 ('25)</li> <li>BMW / PSA / Daimler 등 C-V2X 실증 지속</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랑스 C-ITS 사업 : DSRC/LTE</li> <li>보쉬 주관 5G-CV2X 기반 실증 수행</li> <li>독일 디지털 아우토반 구축 : C-V2X 기술 / Application Test</li> </ul>  |
| 중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2X 표준을 C-V2X로 확정 ('17)</li> <li>중국 제조 2025 Roadmap 포함</li> <li>5G 통신 / 지능형 자동차 정책에 포함하여 추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eely C-V2X 장착 예정 ('21)</li> <li>China NCAP V2X 적용 예정 ('24)</li> <li>13개 OEM 정책 발표 - '20. H2~'21. H1 C-V2X 장착 양산 ('19.4)</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V2X 기반 Test Bed 구축 : 10개 도시</li> <li>신규 Test Bed 구축 사업 예정 : 22개 도시</li> </ul>                                           |

자료: 쉐보레,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 1. 실적 추이

| (단위: 십억원) | 1Q19   | 2Q19     | 3Q19    | 4Q19   | 1Q20   | 2Q20   | 3Q20   | 4Q20F  | 2018    | 2019    | 2020F  | 2021F |
|-----------|--------|----------|---------|--------|--------|--------|--------|--------|---------|---------|--------|-------|
| 매출액       | 85.3   | 85.1     | 129.5   | 103.6  | 117.5  | 107.8  | 161.7  | 108.6  | 337.4   | 403.5   | 495.5  | 547.1 |
| 전자부품      | 33.0   | 31.5     | 35.0    | 27.7   | 38.1   | 43.1   | 71.5   | 28.5   | 124.6   | 127.2   | 181.1  | 190.2 |
| 케미칼       | 34.6   | 30.8     | 31.5    | 32.9   | 32.6   | 26.3   | 29.9   | 32.1   | 156.9   | 129.8   | 120.9  | 152.3 |
| 디스플레이     | 15.2   | 20.9     | 23.0    | 22.1   | 21.5   | 24.5   | 25.6   | 24.1   | 48.1    | 81.2    | 95.7   | 116.7 |
| 무선충전      | 2.5    | 1.9      | 40.0    | 19.2   | 23.9   | 11.8   | 31.9   | 21.6   | 6.9     | 63.6    | 89.2   | 77.6  |
| 자율주행      |        |          |         |        | 1.4    | 2.1    | 2.8    | 2.3    | 0.9     | 1.7     | 8.6    | 10.2  |
| 영업이익      | 3.2    | 6.6      | 13.1    | 3.3    | 3.0    | 2.4    | 10.2   | 6.2    | 9.4     | 26.3    | 21.9   | 32.8  |
| OPM       | 3.8%   | 7.8%     | 10.1%   | 3.2%   | 2.6%   | 2.3%   | 6.3%   | 5.7%   | 2.8%    | 6.5%    | 4.4%   | 6.0%  |
| 지배주주순이익   | 2.6    | 3.7      | 9.0     | 0.9    | 0.4    | 0.9    | 8.2    | 4.9    | 1.1     | 16.2    | 12.7   | 21.2  |
| NIM       | 3.0%   | 4.3%     | 7.0%    | 0.9%   | 0.3%   | 0.8%   | 5.1%   | 4.5%   | 0.3%    | 4.0%    | 2.6%   | 3.9%  |
| y-y       |        |          |         |        |        |        |        |        |         |         |        |       |
| 매출액       | 21.1%  | -3.5%    | 29.9%   | 31.0%  | 37.7%  | 26.6%  | 24.9%  | 4.9%   | 15.2%   | 19.6%   | 22.8%  | 10.4% |
| 전자부품      | 40%    | -2%      | -18%    | 2%     | 15%    | 37%    | 104%   | 3%     | 21%     | 2%      | 42%    | 5%    |
| 케미칼       | 0%     | -25%     | -25%    | -16%   | -6%    | -15%   | -5%    | -2%    | 13%     | -17%    | -7%    | 26%   |
| 디스플레이     | 52%    | 55%      | 74%     | 94%    | 41%    | 17%    | 11%    | 9%     | 16%     | 69%     | 18%    | 22%   |
| 무선충전      | 9%     | 36%      | 1900%   | 1500%  | 856%   | 521%   | -20%   | 13%    | -31%    | 822%    | 40%    | -13%  |
| 자율주행      |        |          |         |        |        |        |        |        | 800%    | 89%     | 406%   | 19%   |
| 영업이익      | 518.4% | 125.4%   | 256.0%  | 48.4%  | -6.0%  | -63.3% | -22.3% | 86.5%  | -191.3% | 180.0%  | -16.8% | 49.8% |
| 지배순이익     | 279.8% | -1011.7% | 1607.0% | 243.7% | -86.3% | -75.4% | -9.2%  | 444.6% | -106.6% | 1413.1% | -21.5% | 67.2% |

자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2021년 사상 최대 실적은 이미 확정!

### 마음이 편하다

2020년 매출액은 4,955억(+22.8% y-y), 영업이익은 219억(+810.1% y-y)으로 상장 후 최대 매출액을 실현하지만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 -16.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COVID-19 영향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에 기인한다. 2021년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것이다. 2021년 추정치 매출액 5,471억(+10.4% y-y)과 영업이익 328억(+49.8% y-y)에는 UTG 매출은 반영하지 않았다. 동사의 방식이 채택되면 실적 향상이 가능하고, 이에 앞서 Valuation Re-rating 이 선행하여 나타날 것이다. 안정적인 사업 다각화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실적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2021F PER 12.9x는 저평가 수준으로 판단된다.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단위: 억 원)    | 2017A | 2018A | 2019A | 2020F | 2021F |
|--------------|-------|-------|-------|-------|-------|
| <b>자산총계</b>  | 2,207 | 2,316 | 2,941 | 4,258 | 6,164 |
| 유동자산         | 961   | 1,100 | 1,377 | 2,165 | 3,13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6   | 108   | 330   | 566   | 819   |
| 단기금융자산       | 55    | 66    | 75    | 60    | 8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94   | 466   | 504   | 857   | 1,241 |
| 재고자산         | 376   | 439   | 434   | 600   | 869   |
| 비유동자산        | 1,246 | 1,216 | 1,564 | 2,092 | 3,029 |
| 장기금융자산       | 16    | 26    | 42    | 64    | 92    |
| 관계기업등투자자산    | 0     | 0     | 0     | 0     | 0     |
| 유형자산         | 1,028 | 991   | 1,177 | 1,648 | 2,386 |
| 무형자산         | 82    | 86    | 200   | 236   | 341   |
| <b>부채총계</b>  | 1,455 | 1,528 | 1,947 | 3,147 | 4,899 |
| 유동부채         | 1,206 | 1,315 | 1,469 | 2,349 | 3,401 |
| 단기차입부채       | 875   | 1,002 | 924   | 1,490 | 2,157 |
| 기타단기금융부채     | 0     | 0     | 2     | 3     | 4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28   | 309   | 515   | 835   | 1,209 |
| 비유동부채        | 249   | 213   | 478   | 798   | 1,499 |
| 장기차입부채       | 229   | 193   | 403   | 675   | 977   |
| 기타장기금융부채     | 0     | 0     | 0     | 0     | 0     |
| <b>자본총계*</b> | 751   | 787   | 994   | 1,111 | 1,265 |
| 지배주주지분*      | 747   | 782   | 964   | 1,062 | 1,216 |
| 비지배주주지분      | 5     | 5     | 29    | 49    | 49    |

(주1) 회계실체가 별도인 경우, \* 항목은 자본총계임

### 현금흐름표

| (단위: 억 원)           | 2017A | 2018A | 2019A | 2020F | 2021F  |
|---------------------|-------|-------|-------|-------|--------|
| <b>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b> | 130   | 12    | 545   | 186   | 622    |
| 당기순이익               | -161  | 11    | 166   | 158   | 233    |
| 현금유입(유출)이없는수익       | 371   | 172   | 268   | 346   | 475    |
| 자산상각비               | 161   | 133   | 151   | 256   | 370    |
| 영업자산부채변동            | -47   | -128  | 174   | -221  | 36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0    | 170   | -32   | -459  | -384   |
| 재고자산감소(증가)          | -56   | -24   | -5    | -144  | -269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1    | -145  | 34    | 368   | 374    |
| <b>투자활동현금흐름</b>     | -162  | -84   | -461  | -641  | -1,278 |
| 투자활동현금유입액           | 77    | 109   | 120   | 200   | 0      |
| 유형자산                | 5     | 9     | 13    | 7     | 0      |
| 무형자산                | 10    | 4     | 4     | 0     | 0      |
| 투자활동현금유출액           | 239   | 193   | 580   | 841   | 1,278  |
| 유형자산                | 117   | 92    | 307   | 689   | 1,061  |
| 무형자산                | 34    | 14    | 145   | 49    | 153    |
| <b>재무활동현금흐름</b>     | 61    | 59    | 138   | 681   | 892    |
| 재무활동현금유입액           | 136   | 139   | 297   | 812   | 969    |
| 단기차입부채              | 12    | 86    | 0     | 453   | 667    |
| 장기차입부채              | 117   | 48    | 279   | 345   | 302    |
| 재무활동현금유출액           | 75    | 79    | 156   | 88    | 34     |
| 단기차입부채              | 58    | 73    | 136   | 54    | 0      |
| 장기차입부채              | 9     | 1     | 11    | 9     | 0      |
| 기타현금흐름              | 0     | 0     | 0     | 6     | 16     |
| 연결범위변동효과            | 0     | 0     | 0     | 0     | 0      |
| 환율변동효과              | -5    | 3     | 1     | 2     | 0      |
| <b>현금변동</b>         | 25    | -9    | 223   | 235   | 253    |
| 기초현금                | 92    | 116   | 108   | 330   | 566    |
| <b>기말현금</b>         | 116   | 108   | 330   | 566   | 819    |

### 포괄손익계산서

| (단위: 억 원)       | 2017A | 2018A | 2019A | 2020F | 2021F |
|-----------------|-------|-------|-------|-------|-------|
| <b>매출액</b>      | 2,928 | 3,374 | 4,035 | 5,110 | 5,471 |
| 매출원가            | 2,791 | 3,026 | 3,346 | 4,345 | 4,596 |
| <b>매출총이익</b>    | 137   | 347   | 688   | 765   | 875   |
| 판매비와관리비         | 240   | 253   | 425   | 540   | 547   |
| <b>영업이익</b>     | -103  | 94    | 263   | 225   | 328   |
| EBITDA          | 58    | 227   | 414   | 481   | 698   |
| 비영업손익           | -87   | -77   | -66   | -28   | -30   |
| 이자수익            | 3     | 2     | 3     | 4     | 4     |
| 이자비용            | 39    | 52    | 58    | 56    | 60    |
| 배당수익            | 0     | 0     | 0     | 0     | 0     |
| 외환손익            | 13    | -16   | -8    | 15    | 16    |
| 관계기업등관련손익       | 0     | 0     | 0     | 0     | 0     |
| 기타비영업손익         | -64   | -10   | -4    | 9     | 10    |
| <b>세전계속사업이익</b> | -190  | 17    | 197   | 198   | 298   |
| 법인세비용           | -29   | 6     | 31    | 39    | 66    |
| 연결실체변동관련손익      | 0     | 0     | 0     | 0     | 0     |
| 중단사업이익          | 0     | 0     | 0     | 0     | 0     |
| <b>당기순이익*</b>   | -161  | 11    | 166   | 158   | 233   |
| 지배주주순이익*        | -162  | 11    | 162   | 144   | 212   |
| 비지배주주순이익        | 1     | 1     | 4     | 14    | 21    |
| 기타포괄손익          | -5    | 0     | -11   | -14   | -14   |
| <b>총포괄손익</b>    | -166  | 12    | 155   | 144   | 218   |

(주1) 회계실체가 별도인 경우, \* 항목은 당기순이익임

### 투자지표

| (단위: 원 배,%)        | 2017A  | 2018A  | 2019A   | 2020F  | 2021F  |
|--------------------|--------|--------|---------|--------|--------|
| <b>주당지표 및 추가배수</b> |        |        |         |        |        |
| EPS*               | -1,307 | 85     | 1,141   | 970    | 1,425  |
| BPS*               | 6,008  | 6,195  | 6,809   | 7,147  | 8,184  |
| CFPS               | 1,050  | 98     | 3,844   | 1,254  | 4,189  |
| SPS                | 23,561 | 26,723 | 28,485  | 34,395 | 36,822 |
| EBITDAPS           | 471    | 1,798  | 2,925   | 3,237  | 4,699  |
| DPS (보통, 현금)       | 0      | 0      | 300     | 291    | 291    |
| 배당수익률 (보통, 현금)     | 0.0    | 0.0    | 1.6     | 1.6    | 1.6    |
| 배당성향 (보통, 현금)      | 0.0    | 20.6   | 26.3    | 30.0   | 20.4   |
| PER*               | -      | 72.7   | 16.3    | 18.5   | 12.6   |
| PBR*               | 0.9    | 1.0    | 2.7     | 2.5    | 2.2    |
| PCFR               | 5.4    | 62.4   | 4.8     | 14.3   | 4.3    |
| PSR                | 0.2    | 0.2    | 0.7     | 0.5    | 0.5    |
| EV/EBITDA          | 27.8   | 7.9    | 8.5     | 8.6    | 6.9    |
| <b>재무비율</b>        |        |        |         |        |        |
| 매출액증가율             | 19.0   | 15.2   | 19.6    | 26.7   | 7.1    |
| 영업이익증가율            | 적전     | 흑전     | 180.0   | -14.4  | 45.6   |
| 지배주주순이익증가율*        | 적지     | 흑전     | 1,348.6 | -4.5   | 47.0   |
| 매출총이익률             | 4.7    | 10.3   | 17.1    | 15.0   | 16.0   |
| 영업이익률              | -3.5   | 2.8    | 6.5     | 4.4    | 6.0    |
| EBITDA이익률          | 2.0    | 6.7    | 10.3    | 9.4    | 12.8   |
| 지배주주순이익률*          | -5.5   | 0.3    | 4.1     | 3.1    | 4.3    |
| ROA                | -4.6   | 4.2    | 10.0    | 6.3    | 6.3    |
| ROE                | -21.4  | 1.4    | 18.5    | 14.2   | 18.6   |
| ROIC               | -5.0   | 3.7    | 12.4    | 8.2    | 8.6    |
| 부채비율               | 193.7  | 194.1  | 196.0   | 283.3  | 387.4  |
| 차입금비율              | 147.0  | 151.7  | 133.6   | 194.9  | 247.8  |
| 순차입금비율             | 124.2  | 129.7  | 92.9    | 138.6  | 176.3  |

(주1) 회계실체가 별도인 경우, \* 항목은 당기순이익 및 자본총계 기준임

자료: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기준 해당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지난 6개월간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의 발행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복제,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 ▶ 최근 2년간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 캠트로닉스(089010)

|            |            |
|------------|------------|
| 일자         | 2020-11-24 |
| 투자의견       | Not Rated  |
| 목표주가       | -          |
| 과리율(%)     |            |
| 평균주가대비     |            |
| 최고(최저)주가대비 |            |

\* 과리율 산정: 목표주가 대상시점은 1년이며 수정주가를 적용

## ▶ 최근 2년간 목표주가 변경 추이

## ▶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 기업

|           |                                   |
|-----------|-----------------------------------|
| BUY (매수)  | 향후 12개월간 현재 주가 대비 절대 수익률 15% 이상   |
| HOLD (중립) | 향후 12개월간 현재 주가 대비 절대 수익률 ± 15% 내외 |
| SELL (매도) | 향후 12개월간 현재 주가 대비 절대 수익률 -15% 이하  |

## 산업

|                    |                                        |
|--------------------|----------------------------------------|
| OVERWEIGHT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상회 예상 |
| NEUTRAL (중립)       |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 5% 예상     |
| UNDERWEIGHT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하락 예상 |

## ▶ 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비율 (기준일 : 2020.09.30)

|              |        |
|--------------|--------|
| BUY (매수)     | 100.0% |
| HOLD (보유/중립) | 0.0%   |
| SELL (매도)    | 0.0%   |
| 합계           | 100.0% |